

금융당국, 코로나 재확산에 신용대출 규제 강화 신중 모드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우회로 차단을 위해 금융권의 신용대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당장 대출 규제 강화까지 나서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

현재 대출 규제가 촘촘한 편인 데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용대출 조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신용대출을 조이면 생활자금이 필요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

은행 연체율 '꿈틀'…코로나 재확산에 은행들 건전성 '긴장'

연합뉴스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기준 전체 대출 연체율(잠정)은 0.23~0.36% 수준으로 집계…7월 연체율 전반적으로 상승…코로나 전보다 높기도

기업대출 연체율(0.2~0.48%)이 6월(0.18~0.38%) 수준을 전반적으로 웃돌아…현재 5대 시중은행이 2월 이후 약 40조에 이르는 대출에 대해 만기 상환을 연기했고 이자 납입 유(

은행권, 후순위채 발행 확대…'금융지원·건전성 강화' 차원

디지털타임스

KB국민은행 이달 28일 후순위채 최종 발행규모를 기준 3,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나은행도 이달 3,4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상반기에 각각 6,000억원, 2,900억원 규모로 후순위채를 발행…“상반기에 기업·가계 대출 확대로 BIS비율이 떨어져 자본 건전성 관리도 더 중요해졌다”

라임 회수 가교운용사 레인보우, 금주 등록 신청…펀드 이관 박차

뉴스1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교 운용사 레인보우자산운용이 이번주 중 금융당국에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을 신청

번주 등록 신청이 이뤄지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초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한 펀드 이관과 라임 및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한국판 뉴딜에 10조원…우리금융의 '통큰 지원'

매일경제

이번 금융 지원 중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데이터 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그룹 사업 전반에 걸쳐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그린 뉴딜 분야에선 그룹 기업투자금융(CIB) 부문을 중심으로 친환경, 녹색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반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문에 2,000억원 이상 신규 투자를 계획

'패닉바잉' 부동산 시장에 낮아진 보험사 주담대 금리 주목

에너지경제

부동산 시장에 번지는 '패닉바잉'으로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아져…삼성화재 주담대 최저 금리는 2.5% 금리 우대를 받기 위해 기타 서비스 등을 가입하지 않아도 돼…관계자, "사회 흐름에 따라 보험사들 역시 주택담보대출 상품 영업 확대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내달 24·29일 위험요인 첫 통합공시

연합뉴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과 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은 작년 말(연간공시) 기준 및 올해 1분기(분기공시) 기준 통합공시를 다음 달 24~25일 실시

통합공시되는 내역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체계,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25개 항목…'금융그룹감독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

개미들 반발에 힘받는 '일본식 공매도'

뉴스토마토

금융당국과 학계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일본식 공매도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확인…

연구 용역을 맡은 서울대 안동현 교수 일본식 공매도 제도 도입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일본식 공매도 제도는 중앙집중방식으로 주식대차재원을 공급하는 공적기관이 있다는 점이 특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